



## 송원식 선생

(평안도당 위촉장)

송원식 선생은 1909년에 12월 29일에 원동면  
강울진구역 배냇뜨끼 논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  
났습니다. 선생이 13세가 되던 해에 양부모가 일시에 세상을  
떠남으로 선생은 남의 집으로 돌아 단 4여 노동에 하게 되었다.  
사람으로 태어난 송원식 선생은 자기 형들의 방조를 받아 고종  
에서 공부하였으려니와 소년단 사업을 걸쳐 공철회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동선생은 원래 아주 참하고 인내심이 있는 성품이었으며 그때다 총명한 이남자로써 남보다 유능하게 공부를 잘하였다. 때문에 그는 벌써 17세 되는 고종학생으로써 고종학교 공청회 책임비서로 선거되어 일하게 되었으며 또 군당 위원회의 보증으로 농촌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게 되어 경제적 면에서로 일간의 방조를 받게 되었다.

동선생은 1927년에, 18세의 청년으로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공산당 규약의 하하면 20세 미만의 청년은 특수한 경우에 공산당에 입당 되게 되었는데 3년 이상 당적력을 가진 공산당원 3명의 보증인이 요구되는바 그 중 공산당원 1명 대신 공청회 청년위원회 보증이 있어야 3년간 기한으로 후보공산당원으로 입당되게 되었다. 그러나 동선생은 특별경우 중 특별경우로 군공산당위원장의 보증을 받아 후보당 년한이 없어 공청원으로 붙어 직접 공산당에 입당되었다. 그 후 동선생은 가장 충실한 공산당원으로, 가장 믿음직한 당의 선봉대원으로, 과기 생애의 뜻이 막 시가지까지, 56년 동안 당의 노선을 직했다. 1931년에 동선생은 아주 전망이 밝은 공산당원으로 하마롬스코시 원동변강 공산대학에 편입되어 그 대학을 1933년에 필하시고 불린군당 위원회 당 지도원으로 또 상급 지도원으로 1937년 8월까지 일하시었다.

1937년 8월에는 원릉에 살고 있던 전체 한인들과 함께 소타인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하여 무라처럼 화물차에 싣혀 중국 이서아로 보내졌으나, 이서아 중 동선생 이외 많은 한인들은 잠질부사 (지프스) 병에 걸려 가사노스란 부르노에 시에 서 하차하여 약 일주일간 쉬는 동안 다음 해방국은 사망 되었으나 살아난 사람 절반 과기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살고 있는 하슈견호주 공청회 규약 엠겔사 경심 골노크에 따라 라우게 되었다. 동선생은 골노크에 도착하자 골노크

회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곧바로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  
 었다. 강제로 설치된 의주인들의 농업 협동조합 위원장 일을 하기란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니었다. 화물차에 실려온 사람들에게는 어쨌  
 런 농산기구와 씨앗의 비열에 당긴하여 먹고 살 양식도 없는 것은  
 둘째 문제로 아무런 씨앗도 없었다. 협동조합을 조직한 농산지역  
 미라고 땅을 획정하여 종곡을 개간하지 아니한 수백년동안 묵어  
 대대 손으로 내던져온 갈밭 황무지였다. 반초클막을 짚고 갈을  
 베며 둘러막고 윗예영예고 갈을 베며 두툼하게 자리를 만들고  
 밭에다가 가래를 짚고 갈을 때면서 음식물 짚어 먹으면서 겨울  
 동안 살아 남은 뽕질이 되자 집안에 걸려 앉기 시작하였으며  
 특히는 어린아-어들은 기록 백기음과, 풍마시아 말라리아 병에  
 걸려 몸 땅 다 죽어 갔으며 원기 약한 노인들도 거이나 다 죽어  
 갔다. 이러한 고초-난관에 봉착한 강제어주민들은 어린  
 아이나 늙은 부모들을 장사하고서도 그 어촌날 눈물을 흘리면서도  
 농장에 나가서 그대로 모진 복을 살아볼라 땅을 두지제 되  
 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선생은 상부 각 기관들에  
 돌아 다니며 식량을 대부하여 준다, 종곡을 대부하여 준다 또  
 돌아오는데 월동준비를 위하여 돈을 대부하여 전축제권을 사드  
 린다, 밤을 낮으로 대신하면서 생사를 내걸고, 었음힘을 다  
 하여 경영적으로 일하여왔다. 이렇게 일하여와서 수천년  
 묵은 갈밭으로, 갈을 베어내고 불농한 벼가을에 농사가 잘되여 협동  
 조합 회원들은 매 노력일당 벼 10 길로 야상식 벌어, 일년 농사  
 농화를한 결과 매 노력일당 종으로 벼 3촌 - 4촌 식 벌게되여,  
 부유적 가정들에서 노력자가 3 - 4명이 있는 집들에서도 가을  
 농화에 벼 10촌, 또 돈으로도 수천원씩 분배 받게되였다  
 강제어주민들은 생소한 타향에와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  
 으나 앞으로 살아갈 길은 열리였다. 또 돈을 꾸어서 집정기를

사람들은

4.  
시작한 사택 건축, 공간, 마을간 행정 사무실 및 문화회관  
까지 잘 짚어 갈발 항부지들에는 서양식 새 부락들이 일어난  
서게 되어 사람들은 더 부끄럽히 일하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자라났다

일년 농사를 결산하고 보니 협동조합이 부자가 된 것은 농회 원장은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 비엔 쌀이고, 쌀이면 돈이란 것을 알게 된  
협동조합회원들은 아무런 일장하라는 선전이 없어도, 자원적으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통 열성적으로 하여 로컬 일과  
벌기에 몰두하였다. 농회 원장은 일년 정례 연도 결산에 의하여  
조합에 차려진 리원으로 국가의 빚을 다 갚고도 농촌에 가장긴요  
한 트랙 10 대, 화물차 5 대, 우유한 가니기, 걸기, 파종기  
등과 함께 조합위원장과 책임자들이 타고 단날 농용 자동차  
까지 사온 한편, 기계 자동차고, 기계 수리도 야장간까지  
보안직하게 짚어 조합살림사리를 문법적으로 보양적하게  
화 놓았다. 당시 지방 우크베코 민족들은 목화농사는 잘  
하였으나 벼농사는 한민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배웠다. 부분적  
협동조합들에서, 적게나마 약간의 경주 벼씨와 쌀씨씨들은  
원종에서 강제 육방당하에서도 실고 왔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1939년 농사년은 봄에는 좋은 벼씨들을 많이 심게 되었다.  
우크백 공화국 정부는 강제리우 당하여온 한민들에게 한민에서  
5년간 기한으로 일체 세금들에서 면제 식혀 새 살림사리를 잘  
꾸리도록 하였다. 한민들은 다만 국가에서 대부하여간 벌만 반환  
하였을 뿐 일체 세금은 물지 않았다. 이렇게 평화롭게 3년간  
즉 1938-40까지는 풍부하게 잘 지내었으나 1941년 봄에는  
독-노 전쟁이 시작되자 의무적 양곡 우대량이 각 경리들에  
활당되자 한민들의 생활도 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더 풍요롭게 살았다. 우선 한민들은 정규

군에 공병하지 않고 다만 건설대원으로 1943년봄에 동원되기 시작하여 방어공사 수리, 철도 및 철교수리와 새 철도부설 목적으로 북부 전선과 서부전선에 많이 동원되어 갔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날 때에는 로동 건설대원으로 전선 가까이 가서 일하던 부분적 한인 청년들은 차츰 전류군으로 변경되어 전쟁이 끝날 때 까지 북부한양역의 고층 부분적 청년들은 전사하였으며 부분적 청년들은 군공을 세워 출장리 데다르까지 수여 받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도 없다. 동원식 위원장은 노련 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작되자 경위를 모험적으로 운영하여 부활고를 놓여, 회원들이 소득을 제고 식되는 한편 국가에서 배정받은 의무적 곡물수량을 항상 초과 실행하는 한편, 회원들에게서 불어 자연적 의연금을 불어 거액을 노련군대에 보내어 지속한 전쟁의 승리에 필요한 비행기, 탄크 기타 군기들을 히틀러 군대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건설에 보내는 한편, 적후에서 투쟁하는 빨간지산들과 히틀러 강도배들에게서 강권 당하였던 후방 인민들에게 수많은 의복과 다량의 양곡들을 보내어 전쟁의 승리의 날을 앞당기는 업적이 크게 어바리 하고 국가 표창도 많이 받았다. 총 위원장은 조국전쟁 시기에 무르백공화국 상임위원회 표창장으로 받았으며, 또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기여한 영웅적 노력공훈"이란 메달도 받았다.

동원식 위원장은 1945년 10월에 하뉴권은 주 군사동원부로부터 노련군대에 초보한다는 군사동원증을 받았다. 총위원장 은 협동조합이 크나큰 경위를 오일 어버로 후위원장에게 인계하고 급속한 걸음으로 원동변방 면해주로 나가게 되었으며 11월에는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노련군 제 25 군단 지휘부에 드렸하게 되었다. 25군단 편진 사령부도 총선생을 평남도 동원군 사령부 총부원으로 1945년 11월 15일에 배치하였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군사령부의 가장 중대한 사명은 새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와 긴밀한 연계하에서 일련연

자들을 적산이라 인정하여 이들을 등록인게 하여 연별의 원  
회에 앙르하여, 3정년 이상의 호지를 소유한 전체 연별들을 조차  
등록하고 이들을 불우하여 연별원들에게 불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  
였던바 이를 가르쳐 인쿠호지개혁이라고 칭하였다. 이 호지개혁  
을 진행하는 사업은 단순치 않았다. 농민들이 대대 논논으로 소유하고  
있던 호지를 무상 불우하고, 지주는 비주 식혀나, 추반명의 백성들에게  
불만을 어르켜 부분적으로 살인에까지 어르는 징조들이 벌어지곤  
하였다. 바로 이때에 자기호지를 빼앗긴 많은 흉고한 백성들은 조동  
당이 강제로 어주식혀 보내온 공백한 산악지대에 가족을 이끌고 가  
보내는 난항에 넘어가 일시로 없다가 다시 돌아와 자기호지를 도록  
찾겠다고 생각하고 월남하였던 것이다. 호지를 불우당한 농민들은 조동  
적 무장 행동으로 연별정권을 반기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소련정당  
군대들이 어떻게 하였는지이다. 호지 개혁이 1946년 3월말까지 끝  
난다음 5월부터는 산업국유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적으나 크나 모든  
기업소들은 전부나 불우하여 국가의 소유로 하는 한편, 석탄소나 양화  
취소, 적은 가정용 기계취소 등은 전부 불우하여 연별련의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였던 것이다. 송원익 선생은 농촌정리 유능한 지도자로서 농촌  
군 소군사령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조직 진행되도록 많은  
사업들을 하시었다. 이 결과에 1948년 1월 중순에 송원익은  
전근되어 소군련전 사령부 중앙분부에 올라와 농촌정리 지도부  
상급총액원으로 일하시었다.

송원익 선생은 1948년 12월에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거하자  
북한 공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소련 공산당 조직부의 결정에 따라  
소련 공민자격으로 북하 조선로동당에 전당하게 되었다.

송원익 선생은 전당 후속이 끝나자 1949년 1월 20일 북하  
평양 시 당부위원장으로 선거 받아 일하시었는데, 1951년 1월  
북하 평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선거 받아 일하시었다. 이 시기는  
전쟁시기 인고로 도적범위에서 당사업을 조직 지도 하기는 여주



사진은 1954년 8월에 농원식 선생이 군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부 부부장으로 개설시 농촌 현지도자를 나갔을  
시 찍은 것이다. 우측으로 2번쨰-홍선생, 4번쨰-김일이다.

어려웠던바, 그것은 북한이 야기한 전쟁을 단기간에 승리로 끝  
낼 정권 전 조성을 공산화하려던 계획이 좌한 결과 관련하여  
북한의 산업이 전혀 파괴되었으며, 농촌 정리도 좌한 당하여  
무엇이나 외국 수입품이 없는 군데로, 국가로 유지할 수 없는 행태가  
엿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 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 자기도지를 볼수 당한 북농,  
산업기업도, 삼각주인 광산기업도 주인들- 많은 사람들은 1950년 말기에  
북한 인민군이 후퇴하고 유엔군과 국방군이 들어왔을시 빨수 당할 자기  
소유도를 도둑 찾기 위하여 북한에 도둑들여와 이전의 제민민간의 관계  
를 해명하는 과정 여러가지 부정적 사건의 벌어졌다가 다시 인민군이  
이 도둑 나오는바탕에 인민정권은 배가 큰 터 좌한되고 인민들은 산  
산이 사방으로 후퇴진 조건하에서 경리를 회복하려는 참어림은 엿이었다.  
그러나 농촌정리 사업지도에 경험이 있는 농원식 선생은 평안도당  
사업을 정돈하고 파괴된 저속지, 산업복구를 위한 발전소들과  
배전망을 복구하에서 산업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한편 농촌 정리

협공조합을 복귀하여 다수인민수호를 지시한 농업로 정돈되게 하여  
우선 연변이 먹고사는 문제 불어 해결하여 나갔다.

이렇게 북한 사회경제에 있어서 가장 곤고한 시기에, 북한 연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농민생은 모든 권력을 다하여 국가 사업보장에  
나타나서 애바지하였다. 그 결과에 농민생은 상층의 길에 올라 다음 단  
계를 명천 되게 되었으며 1954년 6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산업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직위에 권근되어 몰타하여서  
총민적 선생은 평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전직시기에 제철시 체험한 모든  
귀중한 사업경험들을 적용하여 권후 농촌경리 복구발전 사업에 크대한  
기여를 하였다. 어디에 와서든 무엇이나 복구사업에 기분이었으며, 농산부  
생남에 있어서도 북한 시 일년에 전전 수권에 도달하는 것이며, 농산부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키는 문제가 중대하였다. 이것을 위하여서 당중앙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에 자기 신탁조르 공장을 짓는 문제라기하  
농산부 공장들을 짓는 문제들로 해결하였으며, 또 그와 병행이 많은  
농산 기술자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새 경험들로 도입케하는 한편 자기도  
적접 노련 및 동등품 나라들에 돌아다니며 많은 사업지로 경험들로  
분받아 들었다. 1955년에 이르자 농촌경리 총수확고는 전전 수권  
에 도달하였으며, 농촌에 새로운 살림사리를 꾸리는 새로운 사책  
들이 일어나서도 한편 농촌경리 문화수권도 개선 되기 시작하였다.  
도시로에는 복구사업이 전적으로 전제되어 도시건설이 급속히 전개  
되었으며, 많은 공장들이 복구되던 한편 새 자동화 공장, 신탁조르  
공장 다른 능기계 공장들과 병행이 경공업 부문 공장들도 많이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전직시기에는 많은 공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1956년에 이르자 많은 간부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벌써  
1954년 불어 부분적으로 시작한 간부들의 사상검열 사업은 간부  
들을 더욱더 철학할 하도 길에 완전히 들어섰다. 독재 정권은 자기 권권을  
영구히 지키기 위하여 과거 자기 출신불어 위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권인민의 아버지" 력사를 아는 여들과  
 이전에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서 일하던 간부들과 또 유식한 간부들은  
 모두 다 자기 세력 꾸림에, 절대 독재화에 민족사상의 불연관  
 성이 초래될까 싶어 봉당 청산하는 길로 나갔다 먼저 남한 간부들,  
 다음 연안간부들, 또 다음엔 조선간부들 밖의 밖에도 지방간부  
 들까지 부로의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상검토 운동은  
 1956년에 이르러 최종점에 이르러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벌써 조선간부들이 처단받기 시작되어 허가이가 1953년에  
 아산 당원 여옥 박영옥, 박이환, 박영빈, 장주익, 최종복, 김원길  
 김태권, 김희성, 정철우, 김철우, 김인 (작은김인) 신천택, 장익환  
 한일복, 송진라 정국옥 등 250여명이 철직 처단 당하였다.  
 그중 50여명은 후속 처단 당하였다. 바로 이때, 1958년에  
 이르자 일을 잘하여 배양각이 호평을 받은 송원식 선생은  
 철직되어 당 중앙으로 복귀 내리막 길을 걸어 평양 남도인  
 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 사상검토 회의에서 특별히 문제를 취급하려 하였으나 불테  
 람씨 고을 송원식 선생께서 무엇을 허를 잡든 무 있어 그저 조선  
 가족주의, 사대주의 다음 조선 출신 상부간부들에게 결핵되어  
 맹종 맹동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히 지적받은 것은 당 중앙 조직  
 부장으로 사업하던 박영빈의 골도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었다. 어렵게 1960년 봄에 종말 절기된 사상검토회의 결정  
 은 송원식 선생으로 하여금 하부농촌 협동조합에 비서리 자기  
 선별을 겸수명하면 당은 다시 관대히 처리하여 송원식 선생을  
 다시 높은 간부로 등용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송원식 선생은, 자기  
 와 같은 처지에서 하부에 내려간 간부들은 많았지만, 사상검토  
 력사 6년간, 다시 올라온 간부들 하나 없고, 내려간가면 가쪽까  
 지 함께 전멸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조선 정부가 평민을  
 배여 다시 조선 평민권을 회복하고 업국허가권을 줄것을 요청하였다.

송원식 선생은 1961년 6월에 소련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해 7월에 소련 모스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도착하였으며, 자기가족과 아들이가족도 동반하여 더러고 왔다.

모스크바 당중앙 조직부에 초청된 송원식 선생은 북한에 귀국한 이후 15년간 자기가 한바 사업총화 보고를 제출하고 북한의 당시 변태된 김일성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자기의견을 말하고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우르벡 공화국 하슈켄트르로 파견받기로 요청했다. 하슈켄트는 도착된 송원생은 우르벡 공화국 공산당 조직부의 지시에 따라 칠란사르 구역에 사택을 배정받고, 아들은 민간항공대 항법사로 취직하였으며 자신은 1952년에 자동차 전복사고로 인하여 입은 하박상으로 인하여 연금수속을 하였다. 송원생은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하슈켄트르 주변 여러 협동조합들에서 자기 힘에 알맞은 할한 일을 계속하시다가 1980년로 북해를 횡전한 녀금생으로 계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북한의 변태된 독재체도에 대하여 밤낮 언원하시다가 1993년 10월에 세상을 떠났다.

송원생은 북한에서 일하시 자기 책임으로 실행한 걸과 국기 훈장 3급, 2급, 자위 독립훈장 2급, 조선해방비무장, 몽고인민 공화국 훈장, 무다한 소련 메달들을 수여 받았다.

송원생의 아들 송일렉산드르를 현재까지도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고려인 문화 협회 사업가, 민족통일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6. 5. 12. 장남 송일렉